

보도	2023.12.19.(화) 석간	배포	2023.12.18.(월)		
담당부서	감독총괄국 ESG금융연구팀	책임자	국 장	김형원	(02-3145-8300)
		담당자	수 석	황재학	(02-3145-8304)

제3회 금융권 「기후리스크 심포지엄」 개최

1 금융권 「기후리스크 심포지엄」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'23.12.15.,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*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「제3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」을 개최

*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

-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금융사들을 독려하고, 일부 대응이 미흡한 금융사들은 지원하여 전반적인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

제3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요

- ◆ (일시/장소) : '23.12.15.(금), 오전 9시 30분 / 전경련 다이아몬드홀 (컨퍼런스센터 3층)
- ◆ (참석대상)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및 ESG 담당자
- ◆ (주요내용)
 - (1부) 개회사 (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)
 - (2부) 기후리스크 관리 우수사례(해외 3사, 국내 3사) 발표
 - (3부) 금융감독원 추진업무 발표 및 자유 토론

- 동 심포지엄은 개회사, 국내외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우수 사례, 금융감독원 관련 추진업무 발표 등으로 구성되며, 금융회사에 실무적 도움 제공을 위해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을 병행
 - 또한, 기후리스크 관리 실무 관련 금융회사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 후 시행할 계획

2 심포지엄 주요 내용

가. 개회사

- 김병철 부원장보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그간 노력 및 도전과제에 대해 소개하고, 금융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 기후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

나. 국내외 기후리스크 관리 우수사례 발표

- 우수사례는 전사적 ①기후리스크 관리체계, ②저탄소 전환계획, ③녹색 분류체계 적용 등 주제별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소개

① 전사적 기후리스크 관리체계와 관련

- HSBC는 자체 수립한 기후전략을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, 기후리스크 관리가 고객에게 어떻게 적용 및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
- KB금융은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기후리스크의 인식, 내부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및 관리 사례를 발표

② 저탄소 전환계획과 관련

- ING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고탄소 배출 업종의 과학 기반 전환경로(Pathway) 수립·관리와 이를 그룹의 핵심전략에 내재화시키는 방안을 소개
- 신한금융은 자체 수립한 ‘전환금융 정책’의 주요내용인 고객의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 노력 유도, 저탄소 경제 전환자금 지원과 여신 및 투자 심사 프로세스 반영 사례 등을 소개

③ 녹색 분류체계 적용과 관련

- 소시에테 제네랄은 주요국 녹색분류체계의 개요 및 특징을 소개하고, EU-택소노미 적용을 위한 이행방안과 구체적 사례를 발표
- 하나금융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고, 이를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한 자체 전산 시스템에 대해 소개

다. (3부) 금융감독원 추진업무 발표, 공개토론 및 질의응답

- 금융감독원은 기후리스크 관련 국제논의 동향,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적용 지원시스템(KTSS) 개발 경과, 기후리스크 갱분석 진행경과 등을 소개하고, 향후 계획을 발표
- 동 발표내용 뿐 아니라 금융사 실무진의 기후리스크 관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공개토론 및 질의응답 실시

3

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



- 금융감독원은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독려하고,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유도
 - 그 외에도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기후리스크 대응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
- 또한, 금융감독원은 「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
 - 「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」와 금융회사 자체 업무처리기준 간 차이점 분석(갭분석)을 지속 실시하고,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수준의 점진적 상향 조정을 유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

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의 개념

- (리스크 요인) 물리적 리스크(physical risk)와 이행리스크(transition risk)로 구분
 - (물리적 리스크 요인)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실물부문 물적피해가 보험, 대출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
 - (이행 리스크 요인)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경제가 급격히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
- (금융리스크) 물리적 리스크 요인과 이행리스크 요인은 금융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금융리스크로 나타남

리스크 유형	물리적 리스크 요인(예시)	이행 리스크 요인(예시)
신용 리스크 	•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·화재 등 발생으로 담보자산의 가치 하락 등	• 고탄소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부도율(PD)·손실률(LGD) 상승 등
시장 리스크 	• 잦은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국가 경제기반 악화로 국채가격 하락 등	• 화석연료 생산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가치 급락 등
운영 리스크 	• 극심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본·지점 업무 중단 등 영업연속성에 영향	•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평판 등
보험 리스크 	• 이상기후로 인한 물적피해 증가로 보험금이 준비금을 초과 등	• 고탄소 기업 주식 및 채권 운용 포트폴리오의 가격 조정 등

- (시스템 리스크)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의 증가는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*로 전이 가능

* BIS(2020)는 기존의 예측불가능한 금융위기를 표현한 "블랙스완(Black Swan)"과 대비하여 기후변화가 가져올 금융시스템 위기를 "그린스완(Green Swan)"으로 지칭

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는 과정

